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

CHURCH OF GOD'S DREAMS







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따라 가겠네

All to Jesus I surrender,
All to Him I freely give;
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,
In His presence daily live.



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, my blessed Saviour, I surrender all.



세상복락 멀리하니 나를받아 줍소서

All to Jesus I surrender, Humbly at His feet I bow, Wordly pleasure all forsaken, Take me, Jesus, take me now.



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, my blessed Saviour, I surrender all.



크신권능 충만하게 내게내려 줍소서

All to Jesus I surrender,
Make me, Saviour, wholly Thine;
Let me feel the Holy Spirit,
Thuly know that Thou art mine.



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, my blessed Saviour, I surrender all. Amen.













사토신경

전등하다 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나오며, 그 외아들 우리 투 예누 그리는도를 믿나오니, 이는 넝쿡으로 잉태하나 동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, 「본디오 빌라도」에게 고난을 받으나, 납타가에 문박혀 통으시고, 당사한 더 사흘 만에 통은 다 가운데서 다시 날아나시며, 하늘에 오르사, 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, 테리로서 난 다와 통은 다를 남판하려 오시리라. 성령을 믿나오며, 거룩한 공회와, 성도가 너로 교통하는 것과, 퇴를 나하여 투시는 건과, 몸이 다시 사는 것과, 영원히 사는 것을 맞사옵다이다. 아멘,









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

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

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를 핥더라

-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
- 23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

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

-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 서
-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
-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

-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
-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 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라

- ¹⁹ "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lived in luxury every day.
- ²⁰ At his gate was laid a beggar named Lazarus, covered with sores
- ²¹ and longing to eat what fell from the rich man's table.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.

- ²² "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and the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's side.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.
- ²³ In Hades, where he was in torment, he looked up and saw Abraham far away, with Lazarus by his side.
- ²⁴ So he called to him, Father Abraham, have pit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, because I am in agony in this fire.'

- ²⁵ "But Abraham replied, 'Son,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, while Lazarus received bad things,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gony.
- ²⁶ And besides all this,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set in place, so that those who want to go from here to you cannot, nor can anyone cross over from there to us.'

- ²⁷ "He answered, 'Then I beg you, father, send Lazarus to my family,
- ²⁸ for I have five brothers. Let him warn them , so that they will not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.'
- ²⁹ "Abraham replied, '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; let them listen to them.'

- ³⁰ 'No, father Abraham,' he said, 'but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, they will repent.'
- ³¹ "He said to him, '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,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.'"

* 찬양대







나를 지으신이 가- 하나님



나를 부르신이가- 하나님





나의 나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-







나의 나된것은다-하나님 은혜라--





한량없는 은혜 - 갚을길 없는 은혜



내삶을에워싸는-하나님의-은혜-







나 주저함 없이 - 그 땅을 밟음도 -



나를 붙드시는 - 하나님의 은혜





한량없는 은혜 - 갚을길 없는 은혜



내삶을에워싸는-하나님의-은혜-







나 주저함 없이 - 그 땅을 밟음도 -



나를 붙드시는 - 하나님의-은혜 -









나 주저함 없이 - 그 땅을 밟음도 -



나를 붙드-시는 - 하나님의-은혜 -





나를 붙드시는 - 하나님의-은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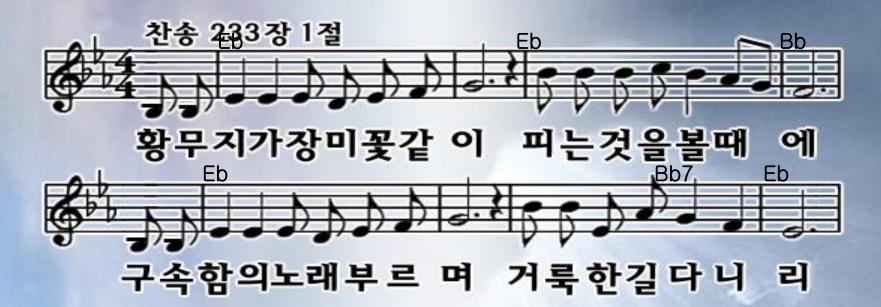


나를 부르신 이가 - 하나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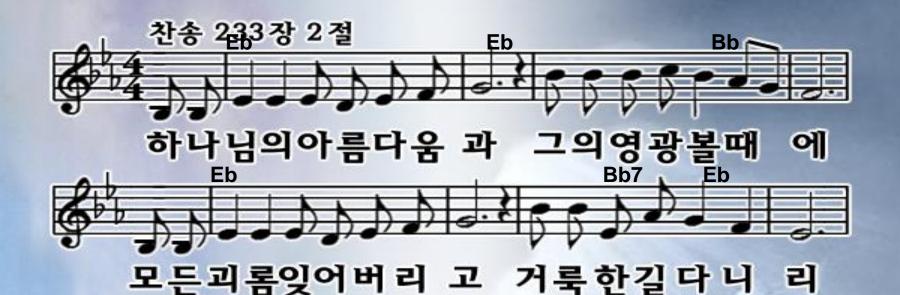


전국과 지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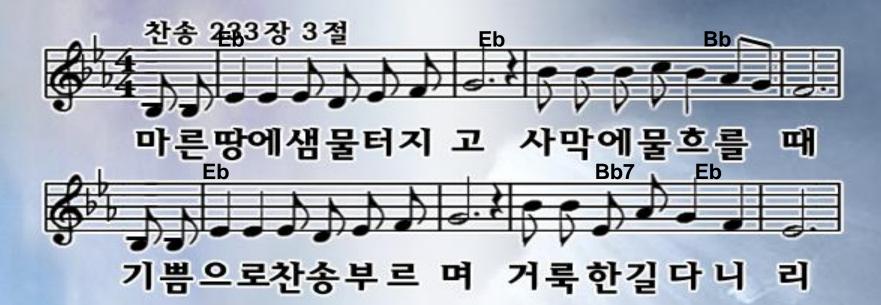
We shall see the desert as the rose,
Walking in the King's highway;
There'll be singing where salvation goes,
Walking in the King's highway.





We shall see the glory of the Lord, Walking in the King's highway; And behold the beauty of His Word, Walking in the King's highway.





There the rain shall come upon the ground,
Walking in the King's highway;
And the springs of water will be found,
Walking in the King's highway.



낮과 같이 맑고밝은 거룩한길다니 리



There no rav'nous beast shall make afraid,
Walking in the King's highway;
For the purified the way was made,
Walking in the King's highway.





No unclean thing shall pass o'er here, Walking in the King's highway; But the ransomed ones without a fear, Walking in the King's highway.





주기도문
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티여, 이름이 거룩히 여기을 받으시오며, 나라이 입하옵니며,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디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학 양턱을 투웁니고, 우리가 우리에게 되 디온 다를 사하여 둔 것같이 우리 퇴를 사하여 투옵시고,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음시고, 다만 악에서 구하옵노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디께 영원히 있나옵나이다. 아멘. (마 6: 9~13)









이곳에 모인주의거룩한 자녀에게-주님의 기쁨과



주님의사랑-이-충만하게충만하게넘치기를 -



(축복합니다) God bless you God bless you





